

「2023년도 4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의견반영 결과

| 지역 (개최일) |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서울지역 (12월19일) | <p>① ‘아카이브 다큐 : 서울 그곳은’ : 영상과 편집이 훌륭하고 지역성도 가미된 참신한 콘텐츠로 평가되는데, 지역채널 대표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제작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?</p> <p>- 현재 기획과 구성은 여러 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기엔 출연자도 제한적이며 시간과 비용과 많이 소요됨. 그러므로 정규물보다 기획물로 제작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제작 기획을 검토해 볼 예정임.</p> <p>② ‘헬로! 코리아’ 는 1인칭 시점으로 여행지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전국의 명소를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관내 지역성과 동떨어져 보인다.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방안은 없는지?</p> <p>- 이 콘텐츠는 초기 기획부터 유명한 전국명소를 소개하고 탐방하는 취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내 지역만 다룰 수 없으며 지역정보다 지역주민에게 알찬 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음.</p> <p>③ 현재 딜라이브 채널은 중장년층 시청자를 겨냥한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데 MG세대 등 젊은 시청자 유입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?</p> <p>- 중장년층 세대는 지역채널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충성도가 높은 시청층으로 지역채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좋지만 젊은 세대는 TV매체보다 유튜브 등 기타 플랫폼을 선호하는 등 거리감이 있는 편임.</p> <p>그러므로 TV용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.</p>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시청률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편성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</p> <p>- 시청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데이터를 통한 심층 분석으로 콘텐츠를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.</p> <p>② 모든 연령층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제안</p> <p>- 온가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.</p> <p>③ 대중에게 콘텐츠의 노출률을 높일 것.</p> <p>- 유튜브 숏츠 등을 제작해 주기적으로 시청자 반응을 점검하고 있음.</p> |

| 지역 (개최일) |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경기지역 (12월21일) | <p>① ‘미’s 코리아’ : OBS와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지만 딜라이브 권역 소개가 부족한 게 흠으로 보인다.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성의 한계는 있지만 시청자에게 타 지역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제작으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였음. 또한 공동제작사와 편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음. <p>② ‘히스토리야(시즌3)’ 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MC와 게스트가 퀴즈 등을 통해 진행하는데 내용 흐름에 방해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칫 지루하기 쉬운 역사 속 이야기를 나열식으로 이끌기보다 예능 요소를 결합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구성한 콘텐츠임. 이야기의 연결이 어색하진 않지만 향후 위원회의 고견을 참고해 구성을 개선해 보겠음. <p>③ 시청률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의 시청률이 높은 편인데 그 원인과 채널 운영 전략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 주민이 지역 이슈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. 특히 이는 뉴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기획취재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.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콘텐츠 제작 시 일반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항상 고민할 것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상 콘텐츠 기획 시 지역밀착 소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광역적인 소재보다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체와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. <p>② TV방송용 콘텐츠 제작 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채널 운영 시 킬러 콘텐츠의 부재는 가장 치명적임. 이에 회사는 시청률 데이터 분석과 트렌드를 상시 조사하고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및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고민하고 있음. <p>③ 유튜브 등 SNS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것을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미 유튜브 숏츠 등 용도에 맞는 콘텐츠를 재가공 및 제작해 운영 중이며 조회 수가 증가한 콘텐츠는 원인 분석을 통해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로 삼고 있음. |